

한국의 한미동맹 정책과 중국의 대북 정책의 교환을 추진하고, 한국의 중립화 시도

### 한중 동맹론의 대두

- 엔셰통을 비롯한 신흥강대국론자들 중 일부는 한중 동맹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이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Swing State'임.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을 추진할 동인이 강하다고 판단
- 한국의 한미동맹 정책과 중국의 대북 정책의 교환을 추진하고, 한국의 중립화 시도
- 이들 주장은 소수이나, 시진핑에 접근성이 강한 인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과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추진

-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
- 동중국해에서 한중 공동 군사연습, 한중러 안보대화, 중러 군사연습에 한국 측의 참관 제안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안보 협력을 제안
- 북한에 대한 배려가 한중관계에서 더 이상 주 고려대상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중국 신 실크로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의 접목 제의

- 중국은 기존의 신 실크로드 구상('육상 실크로드'와 '해상경제 구역')에서 한반도로 연결하는 추가적인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 한국은 중국 대전략 구상의 완결점이 됨
-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구상에 편승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음

한국은 중국 대전략 구상의 완결점

## 4. 진화하는 미중관계를 전제한 주요 사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정책

전략방향 변수	연미통중 (聯美通中)	연미화중 (聯美和中)	연미협중 (聯美協中)	연미연중 (聯美聯中)
기간	이명박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 시기 (2013 ~ 2017)	2015 ~ 2030	2030 ~ 2049
미중관계	미국의 우위	미국의 군사력 우위 미중 경제력 균형	미국의 군사력 우위유지 중국의 경제력 우위로 전환	미중 군사력 균형 중국의 경제력 우위
국제체제	미중 갈등과 협력의 모색시기	복합적인 미중 갈등과 협력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미중 전략균형 시기 다극 체제 형성
국제체제내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 기반 위 역내 우호증진 노력. 중국과 구동존이 (敦同存異)의 모색	일변도 외교 지양 중국과 구동축이 (敦同縮異) 추구 중견 국가 협력의 모색 및 추진. 미중과 양자 전략대화 강화	한미 전략동맹 운용. 중국과 공조의 심화.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중견국가 협력의 제도화.	동맹외교의 탈피와 다자안보체제 강화 중견국가 협의체의 적극적 운용
북한체제 위기	한미동맹, 대일협력 공고화 및 대중/대러외교 강화	한미동맹 유지 및 대중 및 대일 협력외교 강화. 대북 한중 전략대화 추진	미국 및 중국과 양자협력 기반으로 한미중 삼자 전략대화의 운용	미중과 전략대화 심화. 한미중 삼자협력의 안정화 평화적 통일 실현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2733

홈페이지: www.aicps.co.kr

자료문의: 031-219-3861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Institute for China Policy Studies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 연미화중(聯美和中)에서 연미협중(聯美協中) 병행전략으로

김흥규(金興圭)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2014. 9. 26 <제1호>

### 정책 제언

####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에서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의 병행 추진으로 전환

-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역내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지만, 중국의 대미정책은 여전히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음
- 한국은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은 최대한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敦同縮異) 방식을 추구할 것을 제시함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정책은 미국과 전략적 갈등이 강화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조정이 불가피함
-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고, 미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
- 공동의 이익과 비전을 조정해가면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함. 미중과 공동으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가 추구해야 할 전략방향.
- 한중 동맹론은 현실성 부족하나,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로 한중 관계 격상 고려
-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노력하고, 중견국가 외교협의체 형성 강화하고, “개방주의”에 대한 원칙 고수

미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

#### 중국과 대(對)북핵 협력체제 구축 과감히 추진

- 연미화중 전략에서 전제한 중국 대북전략은 연속성의 강조임.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북전략은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변화에 입각한 새로운 변화가 근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
- 연미협중 전략은 새로이 변화하는 중국의 대북관 및 정책을 이해하고, 기존의 중국 배제 혹은 중립화 전략에서 보다 과감하게 중국과 대(對) 북핵 공동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삼자 협력을 실현시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중국과 공동 이익과 전략적 비전을 조율하면서 한반도 위기의 관리 및 극복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함

보다 과감하게 중국과  
대(對) 북핵 공동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

## 1. 시진핑 시기 새로운 외교전략의 추진

### 중국 외교의 DNA 변화

중국이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

- 박중국 외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 시진핑 시기 이러한 변화는 세계 금융 위기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자신감의 증대, 중국 전문가조차 예상치 못했던 시 주석의 급속한 권력 강화 및 활용 의지 등에서 연유
- 자아 정체성의 변화도 중요. 중국 주류 전략사고는 중국이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 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 외교는 적극적인 유소작위(有所作爲)나 주동작위(主動作爲)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보다 광역적이고, 전략적이며, 전문화되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임
- 중국은 더 이상 지역 국가나 지역 내 주도권을 경쟁하는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대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2.5+@ 전략”의 적용

- 시진핑 시기 강대국 외교는 기존 후진타오 시기에 대미 외교를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구상하였던 “1+@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음
- 러시아(1)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기존 강대국 외교의 핵심이었던 미국(1)과는 전략적 소통 유지, 새로운 대유럽외교의 핵심으로 부상한 독일(0.5)과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탈 미국화 전략 추진

### 주변국 외교의 강화

시진핑 시기 외교는 주변국 외교를 크게 중시

- 시진핑 시기 외교는 주변국 외교를 크게 중시
- 대주변국 전략의 세분화 및 능동적인 대응 추진. 필리핀, 베트남, 북한 등과 같이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견제 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경계선에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펴고 있음
- 중국은 2013년 이미 20여주변국의 국가원수나 정상들과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4년 한국, 몽골방문처럼 이전 관행과는 달리 단독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감한 점혈(點穴)외교를 추진함

### 새로운 실�크로드 추진, 대미 제도·규범 경쟁의 개시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을 추진중임

-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을 추진중임
- 중앙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신 육상실�크로드와 더불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을 연결하는 신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동시에 추진 중
-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통, 무역, 경제협력, 인적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다는 계획
- 중국 안보의 취약점인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함. 또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설립을 추진
-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신안보체제 수립을 제안

###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외교전망

- 중국 외교는 향후 보다 전략적, 적극적, 선제적인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시의 집권 2기(2017-2022)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겹쳐,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면서, 외교 강도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2. 격랑이 일고 있는 미중관계

### 2005년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헤징정책의 채택

- 2005년은 미국내 대중정책 논쟁의 분수령임. 미국은 이 논쟁을 통해 첫째,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으며, 두 번째, 중국을 봉쇄정책으로 견제할 수 없으며, 세 번째, 중국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이를 미국 중심의 질서로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을 지역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인정하였고, “전략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함. 헤징정책의 가동

###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지만 부시의 공화당 정권의 “2005년 대중정책”을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중국을 세계적인 의미의 이해상관자로 대우함

- 중국은 2008-09년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인 위상과 자긍심이 크게 고양
- 시진핑 집권이후 고양된 국제위상을 기반으로 보다 야심찬 대외관계 및 안보전략을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이어짐
- 중국은 미중간의 평등성을 전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적극 제안하여 오바마로부터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

### 미중 새로운 단계의 경쟁돌입

-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호간의 핵심이익을 국제무대에서 지지해 주기로 합의
-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몽골, 미얀마, 인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재강화하여 미일의 견제를 상쇄하려는 움직임
-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아세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신남방삼각(미·일·호) 혹은 다이아몬드 제휴 체제(미·일·호·인)를 형성하려 하고 있음
-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수립구상”처럼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향후 국제규범 영역에서도 미중 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미중 관계가 새로운 격랑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중국은 미중간의 평등성을 전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적극 제안

예상보다 빨리 미중 관계가 새로운 격랑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3. 시진핑 시기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의 모색

### 중국의 신한반도 균형자론

- 중국은 기존의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중관계를 보다 독립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중국은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남북한에 대해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하고, 남북한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으로 전환중
- 기제로 6자회담의 우선적인 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 훈련 정지,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포기와 한미동맹의 교환 등을 고려한 접근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남북한에 대해 보다 균형 있게 접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으로 전환중